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의 신적-드라마(Theo-Drama)가 함의하는 공공성(publicity)에 관한 연구*

박형철 (서울여자대학교 테크노·아트·미디어신학)
문영빈 (서울여자대학교 테크노·아트·미디어신학)

I. 서론

II. 발타살 신적-드라마의 공공성

1. 공공신학과 신적-드라마
2. 신적-드라마의 정치신학
3. 신적-드라마의 사회윤리학

III. 발타살 신적-드라마 신학의 교회 실천(church-praxis)

1. 신적-드라마의 해방신학
2. 신적-드라마의 실천과 행동

I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문영빈 교수가 교신저자로 활동하였음.

• ABSTRACT •

A Study on Publicity Implicated in Hans Urs von Balthasar's
Theo-Drama

Park, Hyung-Chul
Moon, Young-Bin

Hans Urs von Balthasar is famous for his theological aesthetics which is elaborated in his masterful trilogy entitled *The Glory of Lord*, *Theo-Drama*, and *Theo-Logic*. This study excavates the concept of publicity implied in *Theo-Drama* that sees salvation history as a drama played out in the world stage. This drama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initiation of the Trinit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human actor. Focusing on the public-theological contents - political theology, social ethics, and liberation theology - manifest in *Theo-Drama*, we investigate the socio-political roles or praxis of the church and the human actor in this world. We show that Balthasar's drama theology is a church-centered praxis theology that stresse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hurch (and the human actor) in the world, and that it is also a public theology that attempts active dialogue with the social sciences with the aim to promote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This study thus intends to contribute to enriching the resources of public theology and extending its horizon.

Key words: Hans Urs von Balthasar, Theo-Drama, publicity, political theology, social ethics, liberation theology

I. 서론

2013년 9월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내한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은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계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 본회퍼 목사와 고백교회의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흑인 인권운동을 사례로 든다. 저항과 투쟁을 통한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구티예레즈(Gustavo Gutierrez)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루치(John W. De Gruchy)로 이어진다. 그루치는 ‘세계 구속의 드라마’는 사회 참여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이는 말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과 희망 안에 있는 ‘존재와 행위’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말한다.¹⁾ 2차 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몰트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은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겪은 그루치가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은 몰트만과 그루치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톨릭 신학자이다. 특히, 그의 신학이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과 사회-정치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는 윤리학에 영감을 준 점, 그루치의 정의(justice)에 의한 신학적 미학과 사회 참여와 변혁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²⁾ 발타살은 수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그의 신학의

1) John W. De Gruchy,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32;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는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yevsky)의 작품 『백치』에서 미쉬킨의 대사인데, 발타살과 그루치는 이를 신학적 미학의 모토(motto)로 사용한다.

2) 발타살은 바르트(Karl Barth)뿐 아니라 몰트만과도 많은 신학적 대화를 한다. 그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분석하며 그의 삼위일체론은 헤겔의 변증법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노우재, “발타살의 드라마틱 구원론: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결정적 표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신학전망』 179 (2012), 55-56, 61-62 참조.

정수는 삼부작(Trilogy)에 집약된다. 발타살은 자신의 저서들 중 삼부작, 『영광』(*The Glory of Lord*)은 미(美)의 측면에서, 『신적-드라마』(*Theo-Drama*)는 선(善)의 측면에서, 그리고 『신적-논리학』(*Theo-Logic*)은 진(眞)의 측면에서 각각 기독교 계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광』이 서곡이라면 『신적-드라마』에서 중심적 사건들을 다루며 콘텍스트를 이해하고 『신적-논리학』에서 방법론적이고 후험적인 성찰을 통해 그 삼중적 신학체계를 완성한다.³⁾

본고는 삼부작으로 완성되는 발타살의 신학적 미학 중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의 공공성(publicity)을 고찰하고자 한다.⁴⁾ 발타살의 신적-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구속사(salvation history)이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죄와 죽음으로 인한 비극으로 보는데 이 비극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비극을 통해서 극복된다.⁵⁾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한 존재적 구원은 이루어졌

3) 발타살의 삼부작은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s. 1-7;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s. 1-5; *Theo-Logic*, vols. 1-3이다. 발타살은 삼부작을 구축하기 위한 자신의 철학이 형이상학(meta-physics)이 아니라 ‘인이상학’(meta-anthropology)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관한 소개로는 Hans Urs von Balthasar, “A Resume of My Thought,” *Communio* 15 (1988); 김산춘,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상,” 『미학·예술학 연구』 9 (1999), 103-119; Richard Viladesau,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손호현 역,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75-77 참조.

4) 발타살의 신적-드라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최근 연구로는 박형철, 문영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의 신적-드라마(Theo-Drama)의 기반이 되는 세계 무대(World Stage)에 관한 연구: 세계 무대와 중간계(Middle-Earth)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5/4 (2013), 169-94; 문영빈, 박형철, “비극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구원의 드라마: ‘하마르티아(hamartia)’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2/4 (2013), 65-97; 박형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과 케빈 반후저(Kevin J.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에 나타나는 구원론에 관한 연구: 두 드라마 이론의 요소들(elements)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4 (2012), 165-88; 김성원, “케빈 반후저(Kevin J. Vanhoozer)의 포스트보수주의(Postconservative) 신학 방법에 관한 분석비평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20 (2008), 105-38 참조.

5) 발타살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극’으로 표현한다. *TD I*, 397-408; II,

지만 지금 여기의 세계 무대(world stage)를 살아가는 인간 배우(human actor)들에게 실존적 구원을 위한 참여와 역할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⁶⁾ 이에 대해 신적-드라마를 중점 연구하는 퀴시(Ben Quash)는 드라마에는 사회적 측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삶, 다른 말로 책임’ 없이는 적절한 드라마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⁷⁾ 이는 현대 세계의 사회·정치적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대해 ‘행위 주체’(acting subject)인 인간 배우에게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바티칸 2차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회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발타살은 누구보다 사회과 학과의 대화를 통한 교회 실천(praxis)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당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한 라너(Karl Rahner)의 초월신학의 지나친 개방성을 비판하며 교회의 중심을 지키고자 했던 균형을 가진 학자였다.⁸⁾

본고는 발타살의 삶과 신학에서 드러나는 이런 실천과 균형을 신적-드라마 안에서 탐색한다. 특히 발타살의 저서 『신적-드라마』 1, 4권을 중심으로 이에 나타나는 공공신학적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공공신학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본고의 의의와 한계를 둔다. 이를 통해 발타살의 신적-드라마 신학이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되, 도그마에 갇힌 신학이 아닌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뇌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의 신학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루치가 신적-드라마 안에서 아름다움의 구

36-38; IV, 171-222; 주요 일차문헌인 Hans Urs von Balthasar, trans. Graham Harris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I-V*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98)의 표기는 TD I-V로 줄임.

6) 신적 드라마의 구성 요소들을 핵심 요소(core element: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반 요소(ground element: 세계 무대), 행위 주체 요소(acting subject element: 인간 배우)로 재구성한 연구로는 박형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과 캐빈 뱀후저의 드라마 이론에 나타나는 구원론에 관한 연구,” 171-78 참조.

7) Ben Quash, “Drama and the Ends of Modernity,” in *Balthasar at the End of Modernity* (Edinburgh: T&T Clark, 1999), 140-41.

8) 김산춘,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성,” 109.

속적(redemptive) 힘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방신학에 초점을 맞춰 발타살 신학의 공공성을 드러냈다면, 본고는 발타살 신적-드라마 신학에 나오는 정치신학, 사회윤리학, 해방신학적 내용들과 그 함의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공공신학 담론 지평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⁹⁾

이 글은 먼저 공공신학의 흐름을 살피고 그 안에서 신적-드라마 신학의 위치를 가늠해본다.¹⁰⁾ 다음, 발타살의 드라마 신학이 담고 있는 공공성을 고찰하는 데, 1권의 정치신학, 사회윤리학 그리고 4권의 해방신학 순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발타살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 무대의 공적 영역에서 행해져야 하는 교회 중심의 신적-드라마적 실천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9) 그루치는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다루며 자신의 해방신학과 연결시킨다. 이는 발타살 신학의 공공신학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발타살의 해방신학적 관점만을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적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방신학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De Gruchy, "The Redemptive Power of Beauty," in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97-135.

10)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드라마는 다양한 매체 중 한 양식이며 이런 측면에서 드라마신학은 일종의 매체신학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 빅뱅 시대의 상황에 맞춰 포괄적인 '매체신학'이라는 공공신학에 관한 일련의 고찰로는 문영빈, "메시지는 없다. 포스트모던 매체신학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2011), 171-91;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5 (2010), 227-60; 문영빈, "뉴미디어시대에서의 '신의 형상' 재조명 연구," 「종교연구」 55 (2009), 65-94; 문영빈, "우주-생명-인간의 파노라마와 인간원리: 포스트 갈릴레이-다윈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매체신학적 조명," 「종교연구」 57 (2009), 57-93; 문영빈, "통합적 생명윤리와 사회윤리학적 함의: 시스템이론적 관점," 「기독교사회윤리」 12 (2006), 123-52; Young Bin Moon, "The Mediatized Co-Mediatizer: Anthropology in Niklas Luhmann's World,"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47 (2012), 438-66; idem, "God as a Communicative System *Sui Generis*: Beyond the Psychic, Social, Process Models of the Trinity,"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45 (2010), 105-26 참조.

II. 발타살 신적-드라마의 공공성

1. 공공신학과 신적-드라마

공공신학은 세계의 공적 영역 전체를 기반으로 하며 제반 학문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¹¹⁾ 복잡적으로 급변하는 세계화의 상황 가운데 기독교 신학이 공적 영역을 포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 즉 신학과 일반 사회과학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근거를 찾음으로써 현대 세계와 교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공공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같은 비서구권의 역사적 도전 앞에 드러난 서구 신학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치신학, 해방신학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공공신학은 좀 더 다양한 주제들과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학계의 흐름 가운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 신학에 나타나는 공적 측면이 어떻게 비교되고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 살핀다.

공공신학의 흐름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²⁾ 공적 영역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유형이 첫 번째이며 칼 바르트를 이런 유형의 공공신학자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티맨(Ronald F. Thiemann)이 대표 학자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신학적 담론의 공적 성격을 추구하는데 이는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와 트레이시(David Tracy)가 대표한다.¹³⁾ 마지막 유형은 공

11) 신학이 그것을 공유하는 자들만의 게토 안으로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공성(publicity)이 필요하다. 현요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장신논단」 20 (2003), 150-51 참조. 정보화시대의 상황에서 신학이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로는 문영빈, “정보화시대의 신학,” 「종교연구」 31 (2003), 163-85; 문영빈, “정보매체로서의 신학: 대학에서의 신학을 위한 새 패러다임,” 「조직신학연구」 21 (2008), 35-66 참조.

12) 세 유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승훈, “신학의 대중성과 세계 기독교의 도전: 해석, 비판, 그리고 타자와의 연대,” 「신학연구」 54 (2009), 156-99 참조.

공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와 세계화 과정에서의 신학적 담론을 개념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비롯한 모든 세계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신학적 흐름들 속에서 발타살의 신적-드라마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통한 실천 강조. 둘째, 사회이론과의 대화를 통한 신적-드라마 안에서의 사회와 인간의 실존 모색. 셋째, 라틴 아메리카의 구티예레즈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그루치 등 해방신학적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

본고는 이와 같이 발타살의 신학이 담고 있는 공공성(publicity)을 저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다루는 정치신학, 사회윤리학, 해방신학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공공신학이 세계의 공적 영역을 기반으로 신학과 제반 학문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신적-드라마가 세계 무대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 주체인 인간 배우 삶의 실존 영역을 다룬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신적-드라마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넘어,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와 역사의 ‘복합 시공간’(complex time-space)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사회의 실존적 관계, 즉 정치를 다루는 것과 연결된다.¹⁴⁾

2. 신적-드라마의 정치신학

발타살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학과 선교 사역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지녀왔음은 분명하다고 말한

13) 스탠크하우스의 공공신학과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교회윤리를 비교한 연구로는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 (2013), 211-32 참조.

14) ‘복합 시공간’(complex time-space)에 대해서는 박형철, 문영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의 신적-드라마(Theo-Drama)의 기반이 되는 세계 무대(World Stage)에 관한 연구” 참조.

다.¹⁵⁾ 콘스탄틴 때부터 중세 시대에 걸쳐 기독교회는 교회적이며 정치적인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왕좌와 제단의 혼합(fusion)은 오래 지속되었고, 19~20세기를 지나면서 정치에 대해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정치적 전사(fighter)들은 많이 있었다. 교회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는 현대 정치 신학 담론까지 이어진다. 발타살은 근대 이후 더 심각해진 사회의 상태와 조건 하에 책임감에 대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책임감 이상의 새로운 것들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¹⁶⁾

발타살은 신적-드라마 1권을 시작하며 극장과 세계 무대 등 신적-드라마의 자원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현대 신학의 경향과 흐름을 9가지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정치신학’은 그중 하나이다.¹⁷⁾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신학이 ‘정치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세계 사이의 이런 정치적인 면이 신적 드라마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타살은 고대의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도시국가(polis)와 관련이 있었고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셰익스피어와 쉴러(Schiller)의 대부분의 극작품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는 왕, 영웅, 장군, 정치가 등 위대한 배역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초월적

15) Hans Urs von Balthasar, *A Short Primer for Unsettled Laymen*, trans. Mary Theresilde Sker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5), 122.

16)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삶 속에서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제국이 여전히 견제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위의 책, 122-23.

17) 9가지 핵심 개념들은 event, history, orthopraxy, dialogue, political theology, futurism, función, role, freedom, evil 이다. *TD I*, 5.

인격을 지닌다고 말하며 이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연결시킨다.¹⁸⁾ 예수는 고소당했을 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드러내놓고(openly) 세상에 말하였다 나는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 것도 비밀스럽게 말한 적 없다”(요 18:20). 사도행전의 사역 장면들 또한 공공장(public arena)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예수의 재판과 사도들의 증언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타살은 이에 대해 이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공적 세계 무대’(public world stage)에서 진지함으로 행하는 왕은 정치적 드라마 안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¹⁹⁾ 물론 예수의 삶이 유대인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당대의 메시야 모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주장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발타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듯 힘이 없을지라도 세계 무대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공적으로 행동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고전 4:9, 히 10:33),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²⁰⁾

발타살에게 정치학 개념은 그리스도 아래 ‘일원’으로서 심원한 결속(solidarity) 안에서 이해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조건 아래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이는 모든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결속에 근거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포함한다.²¹⁾ 교회는 세계라는 지평 위에 세워지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열매를 얻는다. 또한 이를 통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고전 15:24)를 이루어간다.

18) TD I, 37.

19) TD IV, 310. 예수는 자발적이고 ‘무죄한 희생양이었으나 말과 행동을 통해 적대자들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자처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의 선포가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지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Raymund Schwager, *Must There Be Scapegoat?* 손희송 역, 『희생양은 필요한가』(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312.

20) TD I, 39.

21) 위의 책.

비록 정의와 평화를 이룰 실제적인 힘은 없으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십자가 죽음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바울의 역설(고후 12:10)이 내재되어 있다. 발타살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계와 역사의 드라마적 상황은 정치학의 영역을 넘어서며, 이는 관점에 따라 비극적이거나 유평극적으로 또는 궁극적 화해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만약 정치적 의미가 궁극적 의미와의 연관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인간 실존의 긴장 가운데 펼쳐지는 드라마적 차원과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3. 신적-드라마의 사회윤리학

발타살은 드라마적 자원들(dramatic resources)을 소개하면서 세계 무대(world stage)를 가장 먼저 자세히 다룬다. 그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사회윤리학과 연결시킨다.²³⁾ 신적-드라마에서 세계 무대는 ‘삶과 세계라는 극장’ 개념과 연결되며 그 곳에서 연기하는 인간 배우는 각자의 역할을 가진다. 발타살은 바이온(Bion of Borysthens)의 ‘역할’ 개념을 소개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신학이 아닌 인류학적-윤리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다.²⁴⁾ 그는 또한 텔레스(Teles)와 에픽테투스(Epictetus)를 인용하며 ‘좋은 배우’란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말한다. 이는 인류학적이고 윤리학적 관점에서 인간 배우로서 삶의 과정을 살아갈 때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좋은 배우는 왕이든, 거지든 주어진 부분에 대한 역할을 ‘훌륭하게 잘’ 연기해내는 배우이며, 자신의 가면이나 옷을 의식하지 않고 삶의 내용이

22) *TD I*, 40.

23) 발타살은 이런 연결을 ‘Ethics of the Stage’라고 표현한다. *TD I*, 6, 140-44.

24) *TD I*, 140.

‘비극이든 희극이든’ 진지함 가운데 깊게 연기해 내는 배우인 것이다.²⁵⁾

인간 배우가 행위 주체임이 중요한 이유는 발타살이 드라마의 본질을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²⁶⁾ 그는 인간의 행위를 자기-실현을 추구함에 있어 실존으로의 의미 침투 방법으로 보는데, 이는 미래 추구의 측면과 영적-심리학적 자유와 연관된다. 발타살은 드라마가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드라마적 긴장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과 환경의 변화와 연관되는 자유가 있음을 언급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있으며, 자유를 통한 선택이 윤리학 안에서의 선택과 가치들을 향한 목표와 투쟁과 연관된다는 것이다.²⁷⁾ 또한 발타살은 드라마가 항상 ‘개인’과 연관된다고 말하며, 개인이 어떻게 생존하며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²⁸⁾ 사회 내 인간에 대한 발타살의 관심은 인간이 항상 선택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임과 동시에 비극적 실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는 맥(Dietrich Mack)의 의견과 상통한다.²⁹⁾

발타살은 이런 내용을 통해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이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소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과 더불어 각 분야들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그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구분하면서 사회학은 심리학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인간 주체들에게 무엇이 공통적이며 그들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는 역할 사회학(role sociology)을 언급하며 ‘나와

25) *TD I*, 141-42; 참여, 사회 결정주의 등 ‘실존적 문제’와 배우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TD I*, 291-96 참조.

26) 발타살의 신적-드라마에서 모든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행위(action)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행하며,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해시킨다. 하지만, 사회-정치를 포함한 인간 실존 드라마의 행위 주체는 인간 배우이다. *TD I*, 19, 413.

27) *TD I*, 413-14.

28) *TD I*, 418.

29) *TD I*, 428.

사회적 ‘역할’ 사이의 차이점, 즉 한 인격으로서의 인간과 배우로서의 역할 사이의 차이점을 살피는 것과 전체적인 드라마적 과정에 대해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며, 이를 ‘개인적-인격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³⁰⁾ 인간은 존재적으로는 모순의 상황과 비극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상황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정체성을 사회화 과정에 기대고 있을 때 규범적-사회적 기대에 의해 규정되는 역할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발타살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주장에 기대어 역사의 변화는 기대의 변화를 수반하고 기대가 변하면 역할에 침잠되어 있는 개인 존재는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³¹⁾

발타살은 이런 개인 존재와 사회적 역할의 문제를 버거(P. L. Berger)와 룩만(T. Luckmann)의 ‘사회화 과정’으로 조명한다. 이 이론은 사회는 인간 행위의 객관화라는 관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과 사회의 순환 관계—사회는 인간의 생산이다. 사회는 객관적 실재이다. 인간은 사회의 생산이다—를 강조한다.³²⁾ 발타살은 “단지 배우는 자신의 역할을 배워야 하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다렌도프(Ralf Dahrendorf)의 말을 인용해 사회 내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통한 사회화 과정과 이에 따른 탈인격화 문제를 지적한다.³³⁾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타살은 버거의 이론에 드러난 드라마적 요소에

30) 발타살의 사회학 연구는 분야별로 정리될 수 있는데, 뒤르켐(E. Durkheim)과 짐멜(G. Simmel)의 사회학 자체에 대한 연구로부터 제임스(William James)의 사회 심리학, 린톤(Ralf Linton)의 역할 사회학 그리고 다렌도프(Ralf Dahrendorf)의 역할 심리학까지 ‘나’와 ‘역할’의 관계를 존재 안과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개념과 방법으로 구성한다. *TD I*, 531-37.

31) *TD I*, 534-35.

32) 이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재가 어떤 실재인지 고찰한 시도로는 문영빈, “사회, 종교, 가상현실: 확장가상현실 패러다임과 의미존재론,” *인문학논총* 25 (2011), 403-27 참조.

33) *TD I*, 538-39.

주목하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버거는 ‘사회 속 인간’을 도덕/윤리적인 코드와 정치와 법의 질서 안에 갇힌 ‘감금’(imprisonment)의 이미지로 본다. 반면 ‘인간 속 사회’는 감금으로부터의 ‘해방’의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개인 배우들은 막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자신들에게 할당된 역할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각 역할은 그 안에 훈련을 포함한다. (...) 역할은 행위와 배우인 행위자 모두를 만들고 형상화한다.”³⁴⁾ 발타살은 이러한 버거의 드라마 사회이론에서 사회학적 결정주의(sociological determinism)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한다.³⁵⁾

III. 발타살 신적-드라마 신학의 교회 실천(church-praxis)³⁶⁾

1. 신적-드라마의 해방신학

발타살은 ‘해방’(liberation)의 의미를 먼저 드라마적 구원론 안에서 찾는다. 그는 인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위한’ 해방으로부터 주어지느냐가 중요하며, 죄와 세계 그리고 죽음과 악한(demonic) 세력 같은 ‘힘들’(powers)로부터의 구속과 해방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삼위일체적 삶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⁷⁾ 발타살은 해

34) *TD I*, 542, 재인용.

35) *TD I*, 543-44.

36) II절에서 ‘신적-드라마에 대한 서문(prolegomena)’인 *TD 1*권에 나타나는 공공성의 주제들 -정치, 윤리, 사회학- 가운데 세계 무대 위에서 행위 주체로서 인간 배우의 사회-정치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개요를 살폈다. III. 1절에서는 *TD 4*권 안에 나타나는 공공성의 실천 개념인 해방을 신적-드라마적 국면에서 살피며, III. 2절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실천들을 다룬다.

37) 이 주제는 드라마적 구원론의 해방된 자유(freedom liberated)에서 시작된다. *TD IV*,

방의 신적-드라마적 측면을 삶의 자리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바티칸 2차 공의회 문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계와 실존을 설명한다.³⁸⁾ 인간에게는 투쟁적 요소들과 결점들이 있으며 모든 '사회적 삶 내 불일치들'은 이러한 인간 존재로부터 기인한다. 고통을 비롯한 인간의 다양한 상태는 드라마적 본질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인간은 인류의 진정하고 총체적인 해방을 희망한다. 인간 실존은 전장(battlefield)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양면을 다 지님으로써 그 자체가 투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의 '드라마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비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열망이 있음에도, 인간이 악을 극복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더 나은 질서를 위한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데, 발타살은 해방신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³⁹⁾ 그는 이것이 실천(praxis)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계라는 드라마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계-변혁을 위해 힘을 모음으로써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네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한다.⁴⁰⁾ 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승리의 성취가 아니라 저항이다. ②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저항'의 승리이다. '십자가의 정치학'은 이 세계에서 정의실천으로서 하나의 부분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③ 폭력에 대항하는 문제에 있어 십자가의 전략은 죽음의 전략이었으며, 그것은 이 땅의 세력에 대한 투쟁에는 적용될 수 없다.⁴¹⁾ ④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367-70, 394-95.

38) TD IV, 476-81.

39) TD IV, 481-82.

40) TD IV, 482-87.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엄정한 의무가 있다.

발타살에게 이 땅에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며,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는 사회 상황의 긴급함 속에서도 해방신학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경제적인 온전한 해방을 위한 움직임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고 그를 위한’ 궁극적 해방의 지평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²⁾ 발타살의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해방신학적 개념은 드라마적 실천에서도 적용된다.

2. 신적-드라마의 실천과 행동⁴³⁾

발타살은 “기독교는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실천(praxis)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action)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니체(Nietzsche)의 말을 인용한다.⁴⁴⁾ 발타살은 먼저, 하나님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진리를 보인다는 것을 언급한다. 다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로 마무리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또한 이는 세계 무대에서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윤리학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⁴⁵⁾

41) 이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인가? 무저항 비폭력과 ‘십자가의 정치학’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인간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는 ‘이 땅에서의 힘의 사용’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우선, 예수님, 예수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의 힘의 방법의 예를 찾을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땅의 힘과 관계 사이에서 현실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신학에 의해 단순하게 평가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 *TD IV*, 484-85.

42) *TD IV*, 486-87.

43) 발타살 신적 드라마 후반부인 4, 5권 제목이 각각 *The Action*, *The Last Act* 이다.

44) *TD I*, 32. 재인용.

무엇보다 발타살의 신적-드라마가 정치신학과 사회윤리학 그리고 해방 신학에 이르기까지 공유하는 공통점은 그리스도 중심적(Christ-centric) 교회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신학과와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난하고 억압 받는 자들을 자유케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재정의한다.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이원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의 억압자들은 또한 다른 이들에 의해 억압을 받는다.⁴⁶⁾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신약 전체의 신학은 정치신학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죽음에 의한 신적 용서를 통해 부자와 세리 같은 억압자까지를 품는 것이 예수의 ‘포용의 정치학’이다. 발타살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더 넓은 정황 안에서 윤리적-정치적인 국면을 보았으며 그 최종적인 접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고 말한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정권 교체를 위한 적극적 투쟁에는 실패했지만 이 땅의 정치적인(earthly-political) 방법이 아닌 종말론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발타살은 정치적인 투쟁은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으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처럼 이 세계의 틀과 구조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⁴⁷⁾ 발타살은 해방신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즉 이 땅 위에 유토피아(an earthly utopia)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해방 심지어 해방에 대한 일반적인

45) *TD I*, 33. 신약은 교과서가 아니라 영성이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 문서라고 말한다.

46) 발타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기준-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판하는 은 현대 교회에서 명확하지 않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Balthasar, *A Short Primer*, 123.

47) 위의 책, 125.

개념으로 결코 축소될 수 없다. 해방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 안에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전체 신학의 한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을 통한 교회의 헌신이 필요함을 말한다.⁴⁸⁾

사실, 현실 세계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행동 양식과 그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⁴⁹⁾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는 그런 사회적 실존과 고통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통해 나온 행동의 신학이기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그의 고뇌는 신학의 실천을 결국 영성과 기도로 이끈다.⁵⁰⁾ 발타살은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회화 속 역할의 주체'에서 '사역 속 사명의 주체'로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는 한계를 인정할 때 인간이 지니는 '소외'(alienation), 즉 죄의 본질을 다룰 수 있으며, 소외의 극치이며 극복의 상징인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신학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언급한다.⁵¹⁾ 이는 현대 사회 문제들에 드러나는 구원과 실존 모두에 대한 소외의 상황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국, 현대의 실제적 세계 무대 안에서의 신적-드라마적 실천은 '행위 주체'인 인간 배우들이 바울과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총체적 삶의 참여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미메시스하며 증거할 때 가능해진다. 진정한 공적인 삶이란, 교회와 세상 앞에서 사도적 목격자로서 예수의 삶의 드라

48) Hans Urs von Balthasar, "Liberation Theology in the Light of Salvation History," in *Liberation Theology in Latin America*, ed. James V. Schall S.J.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2), 146.

49) Stratford Caldecott, "The Social Thought of Hans Urs von Balthasar," *Catholic Social Science Review*, 5 (2000), 186.

50) 발타살은 시대 상황 속에서 신학을 최대한 실천하려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계시와의 만남을 통한 체험과 기도와 관상을 통한 영성의 삶의 실천을 중시했다. 베네딕토 16세는 발타살이 영성 전통의 회복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쇠신을 이루는 공동체 건설에 앞장섰다고 회고한다. 서석칠, "발타살의 영성: '따뜻함'의 회복," 『신학전망』 (2012), 119-46.

51) Cf. *TD I*, 533-44.

마를 자신의 드라마적 행동을 통해 입증하는 삶이며, 진리 안에서 드라마틱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상처 받은 세계를 위해 책임을 지는 삶인 것이다.⁵²⁾

IV.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지금까지 발타살의 신적-드라마 신학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성—정치신학, 사회윤리학, 해방신학—을 살펴봄에 실존의 세계 무대 가운데 교회와 인간 배우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그 실천을 고찰해보았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신학의 책임과 실천은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공신학과 기독교 책임 윤리라는 명제 하에 담론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본받음의 제자 윤리, 무한한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책임 윤리 등이 많이 언급된다. 또한 본받음의 윤리(an ethic of imitation)를 넘어 보편 윤리와 규범을 모색하는 요더(John Howard Yoder)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고, 나아가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책임 윤리를 넘어 신학의 공공성을 찾기도 한다.⁵³⁾

발타살의 신학 또한 삼위일체적 사랑이 중심이며 이는 우주의 실존에 대한 유일한 근거와 기반이 된다. 또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52) Quash, "Drama and the Ends of Modernity," 140-41, 150, 169; *TD II*, 51.

53)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외 1인역, 『예수의 정치학』(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26-27; Cf. Gene Outka, *AGAPE: An Ethical Analysis*, 정경화 역, 『아가페: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이창호는 기독교 사랑의 본질적 이상에 비추어 이웃 사랑의 실천을 성실하게 성찰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동시에 사랑에 관한 규범적 탐구가 사회윤리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창호, "정치적 사랑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 『신앙과 학문』 15/3 (2010), 195-227; "사랑이 행복이다!: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사랑의 윤리' 담론 탐색," 『기독교사회윤리』 23 (2012), 83-121. 현요한은 일반 사회에 대한 신앙의 실천 신학-복음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트레이시(David Tracy)의 말을 인용하며 정말 중요한 공공성(publicity)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아가는 계명, 이웃 사랑의 삶과 실천이라는 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요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151.

을 위한 진정한 해방의 근원이 된다.⁵⁴⁾ 이런 내용 때문에 혹자는 발타살에게 사회신학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살펴본 그의 신학은 교회 중심이지만 세상/사회를 향한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실천적 신학이다. 또 그의 신적-드라마는 제반 학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고하고 고뇌하면서 신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공공신학이다. 물론, 본고의 연구가 심원한 발타살 신학의 이런 측면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신적-드라마와 일반 학문과의 통합 연구와 관련해서 사회 내 존재의 소외(alienation)와 죄의 연관성 문제와 성찬(eucharist)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고 세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발타살의 성육신 신학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사건을 통해 유럽의 대학살(holocaust)에 새로운 신학적 성찰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향해 그의 신적-드라마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어 이 시대의 신학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공적 세계 무대를 향해 몰트만이 말하는 구원과 희망의 윤리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의 신, 이것은 기독교만의 유일무이한 표현이다. 죽음의 세계 한복판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희망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⁵⁵⁾

54) Caldecott, “The Social Thought of Hans Urs von Balthasar,” 187-88.

55) 2013년 10월 1일, ‘참된 희망,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몰트만 초청 컨퍼런스 중 발췌한 내용이다. Cf. Jürgen Moltman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참고문헌

- 김산춘.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상』. 『미학 · 예술학 연구』 9, 1999.
- 김성원. 『캐빈 반후저(Kevin J. Vanhoozer)의 포스트보수주의(Postconservative) 신학 방법에 관한 분석비평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20, 2008.
- 노우재. 『발타살의 드라마틱 구원론: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결정적 표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신학전망』 179, 2012.
- 문시영. 『‘공공신학’의 교회, ‘교회윤리’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 2013.
- 문영빈. 『정보화시대의 신학』. 『종교연구』 31, 2003.
- 문영빈. 『통합적 생명이해와 사회윤리학적 함의: 시스템이론적 관점』. 『기독교사회윤리』 12, 2006.
- 문영빈. 『정보매체로서의 신학: 대학에서의 신학을 위한 새 패러다임』. 『조직신학 연구』 21, 2008.
- 문영빈. 『뉴미디어시대에서의 ‘신의 형상’ 재조명 연구』. 『종교연구』 55, 2009.
- 문영빈. 『우주·생명·인간의 파노라마와 인간원리: 포스트 갈릴레이-다윈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매체신학적 조명』. 『종교연구』 57, 2009.
-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5, 2010.
- 문영빈. 『메시지는 없다: 포스트모던 매체신학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2011.
- 문영빈. 『사회, 종교, 가상현실: 확장가상현실 패러다임과 의미론재론』. 『인문학논총』 25, 2011.
- 문영빈 · 박형철. 『비극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구원의 드라마: ‘하마르티아(hamartia)’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2/4, 2013.
- 박형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과 캐빈 반후저(Kevin J.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에 나타나는 구원론에 관한 연구: 두 드라마 이론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4, 2012.
- 박형철, 문영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의 신적-드라마(Theo-Drama)의 기반이 되는 세계 무대(World Stage)에 관한 연구: 세계 무대와 중간계(Middle-Earth)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5/4, 2013.

- 서석칠. 『발타살의 영성: '따뜻함'의 회복』. 『신학전망』 179, 2012.
- 이창호. 『사랑이 행복이다: 현대 기독교윤리학계의 '사랑의 윤리' 담론 탐색』. 『기독교사회윤리』 23, 2012.
- 이창호. 『정치적 사랑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 『신앙과 학문』 15/3, 2010.
- 정승훈. 『신학의 공중성과 세계 기독교의 도전: 해석, 비판, 그리고 타자와의 연대』. 『신학연구』 54, 2009.
- 현요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장신논단』 20, 2003.
- Moltmann, Jürge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Outka, Gene. *AGAPE: An Ethical Analysis*. 정경화 역. 『아가페: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Schwager, Raymund. *Must There Be Scapegoat?* 손희송 역. 『희생양은 필요한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 Viladesau, Richard.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손호현 역.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외 1인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Balthasar, Hans Urs von. "A Resume of My thought." *Communio* 15, 1988.
- Balthasar, Hans Urs von. "Liberation Theology in the Light of Salvation History." In *Liberation Theology in Latin America*. Ed. James V. Schall S.J.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2.
- Balthasar, Hans Urs von. *A Short Primer for Unsettled Laymen*. Trans. Mary Theresilde Sker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5.
- Balthasar, Hans Urs von.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s. 1-7. Trans. E. Leiva-Merikakis, A. Louth, F. McDonagh, B. McNeil, J. Saward, R. Williams, and O. Davies. Edinburgh: T&T Clark, and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2-91.
- Balthasar, Hans Urs v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s. 1-5. Trans. G. Harrison.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98.
- Balthasar, Hans Urs von. *Theo-Logic*, vols. 1-3. Trans. A. J. Walke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05.

- Caldecott, Stratford. "The Social Thought of Hans Urs von Balthasar." *Catholic Social Science Review* 5, 2000.
- De Gruchy, John W.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oon, Young Bin. "God as a Communicative System *Sui Generis*: Beyond the Psychic, Social, Process Models of the Trinity."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45, 2010.
- Moon, Young Bin. "The Mediatized Co-Mediatizer: Anthropology in Niklas Luhmann's World." *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47, 2012.
- Quash, Ben. "Drama and the Ends of Modernity." In *Balthasar at the End of Modernity*. Edinburgh: T&T Clark, 1999.

논문투고일: 2014. 02. 23.

심사개시일: 2014.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05.

• 국 문 초 록 •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은 신학적 미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그의 신학은 ‘삼부작’ -『영광』, 『신적-드라마』, 『신적-논리학』- 으로 집약된다. 본 논고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세계 무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배우가 완성해가는 드라마적 구원론으로 보는 신적-드라마가 함의하는 공공성에 주목해 고찰한다. 특히, 『신적-드라마』 1, 4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신학적 내용들(정치신학, 사회윤리학, 해방신학)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면서 실존 세계 가운데 교회와 인간 배우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그 실천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발타살의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며 교회 중심의 신학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실천적 신학(praxis theology)임을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그의 신적-드라마는 사회과학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사고하고 고뇌하면서 신학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임을 보임으로써 공공신학 담론 지평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 신적-드라마, 공공성, 정치신학, 사회윤리학, 해방신학
